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KIA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김여울 기자

“다 맞으면서 배우는거지”… 김기태의 이유 있는 여유

KIA 김기태 감독이 25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넥센전 10-12 역전패…연습경기 8연패
“40~45명 선수 테스트하며 문제 파악중
승리보다 시즌 전체 그림 그리는 것 중점”

“시즌 중에 맞으면 큰일나는 거죠. 지금 맞으면서 배우는 것이다.”

7연패 팀 감독은 생각보다 여유로웠다. 25일 넥센과의 경기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김기태 감독은 ‘큰 그림을 그리는 중이다’며 연패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KIA는 전날 24일 경기에서 히로시마를 상대로 25개의 피안타를 내주며 6-19 대패로 7연패를 찍었다. 6회부터 가동된 불펜진이 4이닝 동안 내준 점수는 무려 17점이었다.

김 감독은 히로시마와의 경기가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보신 그대로다”며 말을 아꼈다. 선수단 앞에서는 굳은 표정으로 짧게 메시지를 던진 김 감독이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없는 자리에서 “임준혁을 통해서 못 던졌다고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 우리 애들 귀엽지 않느냐. 다 맞으면서 배우는 것이다”고 웃었다.

연패행진 속에서도 김 감독은 넥센 밴헤켄이 등판한 25일에도 신진급 선수들로 라인업을 짰다. 연습경기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1군 라인업이 아닌 시즌 전체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김 감독은 “27명의 1군 엔트리는 언제든, 지금 당장이라도 짤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시즌 전체를 운영해 나갈 40~45명을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다. 나도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있고 선수들도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다. 게임이야 이기면 좋겠지만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자원이 약하니까 지금은 맞아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력의 부족한 부분은 작전과 투수교체들로 앞으로 채워가야 한다. 지금은 이닝 중간 투수 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닝이 마쳐야 끝나는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맞아야 하는 시기라는 김 감독의 ‘여유’는 오히려 선수들에게 큰 자극이 됐다.

25일 경기 전 차일목은 취재진에게 “뭐가 문제인 것 같냐?”를 질문을 했다. 그러면서 “감독님께서 마음이 급하실 것인데 부담을 주시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가 미안해서 이겨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빨리 승리를 하고 싶다는 선수들의 간절함과는 달리 25일 넥센전도 10-12 연전패로 끝이 났다. 연습경기 8연패가 됐지만 먼 곳을 보는 김 감독의 속마음과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의 신뢰가 있기에 KIA의 캠프는 여전히 평화롭다.

wool@kwangju.co.kr

이종환 나홀로 6타점 ‘눈도장’

벤헤켄 상대 멀티홈런·문성현에 적시타 맹활약
신인투수 이준영·홍건희 피칭, 패배 속 선전

KIA 외야수 이종환이 넥센과의 연습경기에서 밴헤켄을 상대로 멀티 홈런을 날렸다.

KIA가 25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넥센과의 연습경기에서 10-12 역전패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로 KIA의 패배 행진은 8연패로 늘었지만 신진 선수들의 선전과 이종환의 시원한 홈런포가 있었다.

전날 히로시마와의 경기에서 김다원이 멀티홈런을 장식했고, 이날은 이종환이 연타석 홈런쇼를 펼쳤다. 상대는 지난해 20승 고지를 밟은 밴헤켄이었다.

1회 2사 1루에서 밴헤켄의 포크볼을 받아 우월 투런포를 날린 이종환은 2회 1사 1·2루에서도 포크볼을 우측 담장 밖으로 날리며 연타석 홈런을 만들었다. 2이닝을 준비했던 밴헤켄은 이종환에게 두 번째 홈런을 허용한 뒤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이종환의 활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4회 무사 1·2루에서는 문성현을 상대로 좌측선상을 빠져나가는 적시타를 기록하며 2루에 있던 이인행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개의 홈런 포함 3안타로 나홀로 6타점을 기록, 매서운 타격을 선보였다.

경기는 졌지만 테스트를 받고 있는 신진 선수들의 시원한 공격은 아쉬움 속 수확이었다. 1회 2사에서 이종환의 홈런을 시작으로 김다원-서용주-황수현이 연달아 밴헤켄으로부터 안타를 뽑아내며점수를 만들었다. 이인행도 멀티 히트를 기록하는 등 신진 선수들은 밴헤켄-문성현-김대우로 이어지는 넥센 마운드를 상대로 거침없는 공세를 벌였다.

신인 이준영과 예비역 홍건희도 좋은 피칭을 선보였다. 좌완 이준영이 힘있는 공과 변화구로 3이닝 4피안타 2볼넷 3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선보였고, 우완 홍건희도 강지광에게 솔로포를 내주기는 했지만 2피안타 1볼넷 1탈삼진 1실점의 피칭으로 2이닝을 책임졌다.

한편 임준혁-임기준에 이어 선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임트리오’의 임준섭은 이날 서건창, 유한준, 박병호, 스나이더, 김민성, 윤석민이 버티고 있는 넥센 강타선에 뭇매를 맞았다.

2회 선두타자 김민성에게 우측 2루타를 내준 임준섭은 4개의 피안타와 2개의 볼넷으로 대거 5실점을 했다. 3회에는 김민성에게 솔로포를 얻어맞았고, 4회에도 김민성에게 3루타를 내주는 등 5피안타로 4실점을 하는 등 4이닝 10실점으로 부진했다. /김여울기자 wool@

KIA 이종환이 25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넥센과의 연습경기에서 밴헤켄을 상대로 홈런을 때린 뒤 동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격왕’ 꿈꾸는 ‘삼진왕’

루키 황대인 첫 스프링캠프 삼진 10개…“자신있게 스윙하며 적응할 것”

씩씩한 ‘삼진왕’이다.

KIA 타이거즈 내야수 황대인은 생애 첫 스프링캠프에서 ‘삼진왕’ 타이틀을 얻었다. 25일 넥센과의 연습경기 전까지 기록한 삼진 개수는 8개. 황대인은 이날 3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해 2개의 삼진을 더했다.

1회 밴헤켄과의 승부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황대인은 2회 야수선택으로 살아나간 뒤 4회에는 볼넷을 골라냈다. 하지만 6회 넥센 잠수함 김대우와의 네 번째 타석에서 다시 방망이가 헛돌면서 삼진을 추가했다. 수비에서도 2회 송구실책을 기록하는 등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막내는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힘있는 타격이 장점인 황대인은 계속된 삼진에도 씩씩하게 자신의 스윙을 가져가고 있다. 코칭스태프 역시 “주눅 들지 말고 자신있게 풀스윙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말은 쉽지만 프로의 높은 벽을 넘어가고 있는 신인에게는 쉽지 않은 주문이다. 차곡차곡 삼진이 쌓여가고 있지만 ‘삼진왕’은 당당하다.

황대인은 “막상 경기를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 삼진을 많이 당하고는 있지만 자신있게 내 스윙을 가져가고 있다. 열심히 내 스윙을 하면서 프로에 적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졸신인에게는 매일, 매경기가 도전이고 신기하다.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을 보고 쫓으면서 실패를 하고 배워가고 있다.

황대인은 “정말 어려운 승부들이다. 일본 투수들도 그렇고 공들이 상당히 좋다.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볼 끝이 정말 좋다. 그래도 자신있게 할 것이다. 많이 경험하면 적응도 될 것 같다”며 “수비도 많이 부족하다. 아직은 여유가 없다. 전체적인 그라운드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많이 연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타자 선배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도 막내에게는 신기하다. 김주찬과 최희섭은 황대인이 특히 눈여겨보는 선배님이다.

황대인은 “최희섭 선배님과 김주찬 선배님이 타격하시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 정말 좋은 타격을 하시는 것 같다. 많이 보고 배우고 있다.

김주찬 선배님은 방망이도 주셨다”며 들고 있던 방망이를 내밀며 활짝 웃었다.

아직은 실패가 더 많고 배워야 할 것이 가득한 막내지만 코칭스태프가 인정하는 타격 재능과 신인답지 않은 배포와 여유가 있는 황대인이다. 2015 스프링캠프 ‘삼진왕’이 KIA를 대표하는 ‘홈런왕’을 꿈꾸며 쟁쟁한 선배들 틈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